

트럼프 “취임후 北 관련 결정 가장 힘들었다”

폭스뉴스 출연...“지금의 매우 좋은 관계, 가야 할 길 가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지금까지 매우 좋은 관계”라면서 “나는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18일(현지시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폭스뉴스 방송의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대통령으로서 해야 했던 가장 힘든 결정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북한(관련 결정)이 매우 힘들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직을) 인

계받았을 때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라고 말했다”며 “나는 북한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에 대해 우리(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가 진정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지금까지 나는 우리가 갔던 길에 매우 행복하다”면서 “매우 좋은 관계다.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 지금까지는 좋았다”며 “내 생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각에 우리는 위대한 결정들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폭스뉴스는 사전 녹화한 ‘폭스뉴스 선데이

이’ 프로그램의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를 이날 약 30여 분에 걸쳐 방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 중간선거 결과, 로버트 뮐러 특검의 러시아 공모 의혹 수사, 백악관 참모진 개편, 언론에 대한 ‘가짜뉴스’ 지적과 공방,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기지의 죽음, 최근 프랑크 방남 등에 대해 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은 정식 인터뷰가 끝난 뒤 진행자인 폭스뉴스 앵커 크리스 월리스에게 백악관 집무실 내부를 보여주며 ‘결단의 책상’ 앞에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58〉 왕숙문

왕숙문(王淑文, 758-806)은 월주 산음 출신으로 순종 즉위 후 유종원, 유의석 등과 함께 개혁정치를 시도했다. 현종이 즉위에 오르자 사사되었다.

5호 16국 시대 전진(前秦)의 부흥을 보좌한 왕망의 후손이다. 그는 당대 최고의 바둑 고수였는데 덕종은 한림원 대조(待詔)로 태자 이송을 보좌토록 하였다. 공시(宣市) 사건이 태자의 신임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공시는 조정의 관리가 궁밖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인데, 797년 소관 업무가 환관에게 넘어가 환관의 가렴주구가 심화되었다. 태자는 공시의 폐해를 듣고 덕종에게 직언할 것을 결심했다. 다른 참모들은 모두 태자의 용기를 칭송했지만 그만이면 반대했다. 직접 황제에게 환관의 부정을 고발하면 태자

사 검열사로 임명해 재정을 관장토록 했다. 첫 번째 개혁 조치로 경조윤 이설을 통주사사로 좌천시켰다. 황족 출신으로 폭정을 일삼고 백성을 괴롭힌 탐관오리였다. 경기지역에서 밀린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황명을 어기고 강제로 징수해 백성의 공분을 샀다. 관중 지역의 가뭄이 심하자 백성들이 세금 감면을 요청했으나 중간에서 이를 차단했다. 대사면을 단행했다. 잡세 징수제도도 폐지했다. 연체된 세금 526,814 관전을 탕감했다. 특히 백성의 괴롭힘 오방세(五坊稅) 폐지에 백성들이 감응했다. 오방세는 황제의 사냥에 필요한 독수리·매·개 등을 사육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얻기 위한 세금이었다. 공시도 폐지했다. 공녀 300명과 교방·역약 600명을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옥지, 정여경 등 지방으로 내친 관료들을 불러들였다. 지방 번진세력을

순종 승하하자 갈등 빚던 환관파에 사사

가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는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태자는 “선생이 아니면 과인이 큰 실수를 할 뻔했소”라며 크게 신임하게 되었다. 그는 부정부패와 환관의 전횡으로 왕조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마음 아파했다. 왕숙문과 태자 사이에 굳건한 주종 관계가 형성되었다.

문제는 태자의 건강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덕종이 병으로 쓰러진 상황에서 태자도 중풍으로 말도 못하고 육신이 마비되었다. 덕종은 품행이 나쁜 고모 고국공주의 딸인 소씨가 태자비인 것이 마음에 걸려 태자를 교체하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다. 원로대신 이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폐하의 자손들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직통을 지켜야 합니다”고 주장해 교체를 백지화시켰다. 왕숙문 등의 보좌로 천신만고 끝에 즉위에 올랐다. 805년 정월 26일 태극전에서 즉위하니 순종이다.

순종 즉위 후 기거사인 겸 한림학사가 되어 영정혁신(永貞華新)을 주도했다. 감찰어사 유의석, 감찰어사이행 유종원, 이부시랑 위집, 동향 출신 한림학사 능준 등이 태자당을 형성해 개혁의 주역으로 나섰다. 환관 이충인, 순종의 후궁 우소용도 아군이였다. 순종은 위집의 동중서문하평장사로 임명해 재상으로 발탁했다. 두우를 탁지

약화시켰는데 검남서전절도사 위고가 삼천지역도 함께 다스릴 수 있도록 요청하자 그를 처형하려 했다.

순종의 건강이 악화되는 사이 개혁파와 환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환관의 병권을 박탈하려는 노력은 결사저항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환관의 우두머리 구문진은 왕숙문의 한림학사 직위를 빼앗겼다. 한림학사는 ‘내상(內相)’으로 불릴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이 컸는데 이를 박탈당한 것은 치명적 패배였다. 이런 상황에서 순종은 장자 이순을 태자로 삼는다는 조서를 내렸다. 그와 사이가 나쁜 절도사 위고는 한술 더 떠 태자를 감국으로 임명해 병약한 황제 대신 정무를 처리토록 주청했다. 805년 6월 왕숙문은 모친상을 당해 관직을 물러났다. 왕비도 중풍으로 한림원을 떠났다. 8월 순종은 황위를 태자에게 넘겨주고 태상황의 신분으로 흥경궁으로 옮겼다. 왕숙문은 유주사호 참군, 왕비는 개주사마로 좌천되었다. 왕숙문 일파 8인 모두 좌천되었다. 후일 이들을 이왕팔사마(二王八司馬)로 불렀다. 이로써 영정혁신은 좌절되었다. 806년 순종이 승하하자 사사되었다. 신당서와 구당서는 그를 권력에 집착한 무례한 인물로 묘사했다. 사마광의 자치통감도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캘리포니아 산불 사망자 79명 미국 캘리포니아주 뷰트카운티 파라다이스, 콘카우 마을에서 17일(현지시간) 대형 산불로 인한 시신 5구가 추가 수습됐다. 이로써 북캘리포니아주 산불 캠페인어로 인한 사망자는 76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남·북부를 합쳐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산불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총 79명이 됐다.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실종상태의 주민은 1300여명에 달한다. 전날 ‘캠프 파이어’ 산불 이재민들이 텐트를 치고 대피 중인 치코 소재 월마트 주차장에서 한 부부가 게시판에 적힌 각종 지원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중환구시보 “APEC 성명 채택 불발은 美 우선주의 탓”

미중간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입장에 대한 이견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동성명 채택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무산한 데 대해 중국 매체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때문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19일 사평(社評)에서 “APEC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미국 우선주의가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은 WTO 개혁에 3대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WTO 기본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개발도상국의 합리적인 요구를 고려해야

하며, 상호 존중과 평등을 기초로 삼아 질서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또 “미국 우선주의는 현재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이 됐다”면서 “미국은 이전에는 다자주의 체제를 통해 이익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이런 기조를 철회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미국의 이런 행태는 매우 유감이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이라며 “현재 세계 경제 체제는 서방 국가 중심으로 돼 있고 탈라 주도 체제를 지지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구조는 미국 이익에 유리하게 설계됐는데 이런 체제가 무너진다면 장기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AP 등 외신들은 지난 18일 막을

내린 파푸아뉴기니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미중 간 WTO 개혁에 관한 이견으로 공동성명 채택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APEC 정상들은 공동성명 초안을 마련하긴 했지만, 중국은 ‘우리는 모든 불공정한 무역관행 등을 포함해 보호무역주의와 싸우는 데 동의했다’는 문구에 강력한 불만을 제기하며 수정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외교관들이 파푸아뉴기니 외무장관 사무실에 난입하기도 했다.

중국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중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이 문구를 빼길 원했고, 나머지 국가들은 문구를 포함하길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무안 일로읍, 토지 6000평, 10억 급매



- ✓ 전남 무안군 월암리 62-12, 15, 16번지
- ✓ 임야 6000평, 도시지역 8~10M 도로접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
- ✓ 토목공사 완료, 전원주택지/타운하우스 최적
- ✓ 남악신도시 5분, 목포 10분, 광주 40분거리
- ✓ 몽탄~일로간 고속도로근접
- ✓ 시세 - 42억(평당 70만원)

문의. 010-6834-7400